

廉 想 涉 文 學 論

—〈墓地〉 〈三代〉를 중심으로

李 明 宰*

— <차 례> —

- | | |
|--------------------|----------|
| I. 머리말 | IV. 〈三代〉 |
| II. 橫步文學의 형성과 그 特性 | V. 맺는말 |
| III. 〈墓地〉(萬歲前) | |

I. 머리말

우리 新文學에서 근대적인 산문문학의 주된 장르가 되고 있는 소설의 경우, 가장 듬직하고 바람직한 작가는 누구일까? 문학예술의 세계에서도 과연 이를 논의하는 타당성이 성립될 수 있다면 그 대표적인 작가로 우선 橫步 염상섭¹⁾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다. 橫步는 역시 여러 학자나 양식있는 평론가들에 의해 수많은 작품의 가치가 평가됨과 동시에 작가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을 뿐더러 실제 작품의 實績으로 보더라도 作家群들 가운데서는 제일 두드러진 작가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量的으로도 초창기 문단의 主役으로서 수 많은 작품을 발표해 온 春園에 못지 않으며 그 質的 수준에서는 오히려 春園의 그것을 능가하였다. 또한 언제나 치열한 라이벌意識으로 곧잘 春園의 계몽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소설을 비판하여 본격예술로서의 小說美學을 지향해 온 金東仁의 단편소설과 개인위주의 왜소성 내지 퇴영성에 비하면 오히려 大家의인 품모마저 띠고 있다고 보여진다. 말하자면, 尹弘老교수의 지적처럼²⁾ 橫步는 당대의 思潮에 터전하고서 春園이나 東仁보다는 훨씬 時空間의으로 具體的 현실관을 마련하고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의 길을 모색하고 대성하였다. 물론 동년배 作家群이었던 羅稻香이나 玄鎭健등의 그것들 보다는 더 리얼하고 근대 소설적인 요소를 확보한 채 橫步는 분명 식민지 시대의 한국문학을 확충해온 대표적인 작가인 것이다.

* 國語國文學科 助教授

1) 본명은 廉尙燮, 필명이 想涉, 字는 周相, 號는 露月 또는 橫步로써 1897년~1936년에 걸쳐 生存한 그는 여러모로 括目할 文學적 대상이 되고 있다.

2) 尹弘老, 韓國近代小說研究. — 潮閣, 1980, p. 158.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작가 염상섭에 대한 인간과 문학의 要諦를 올바르게 파악함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그의 代表作이라 지칭되는 중편소설 〈墓地〉(萬歲前)와 장편소설 〈三代〉를 그의 데뷔작인 〈標本室의 靑개구리〉 및 기타 작품들과 연결하여 다루어 보기로 한다. 본격적인 文壇生活 32년간에 걸쳐 詩・小說・評論・기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를 망라한 작품수는 무려 500편에 달하지만 그 中樞는 역시 소설인 것이다. 그리고 短長篇을 포함한 橫步의 소설들은 거의 200편³⁾에 가까울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의 만연체 문장과 흥행성 탈피의 困惑性 등으로 흔히 敬遠되어 왔지만 사실 廉想涉文學은 아무래도 장편소설이 그 本營이기 때문이다.

II. 橫步文學의 형성과 그特性

흔히 문학을 바르자크의 명제대로 시대나 사회의 반영이라고 하지만 또한 문학작품은 직접간접으로 개개 작가의 개성과 인격의 재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작품이나 작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文學外的인 요소인 時代相은 물론이요 작가의 개성이나 삶의 軌跡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찌기 廉想涉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전념하여 이를 資料的으로 집대성한 바 있는 金鍾均 교수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타당성이 엿보인다.

想涉小説은 모두가 自己生活의 記錄이기 때문에 다른 現想과 浪漫의 존재가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의 生活背景의 연구는, 그의 작품을 이해 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뿐만 아니라 또한 작품을 통하여 想涉의 생활과 人間을 이해할 수도 있다.⁴⁾

특히 體驗記的인 필치로 리얼한 사회성 소설을 추구해온 橫步에게 있어서 이런 요소는 짙은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圖式的인 決定論을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의 年譜를 살펴보면, 舊韓末 開化期 무렵(1897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廉想涉은 처음 祖父한테서 漢文을 배우다가 就學해서 소학교정을 마치고 소년기인 중학 때 渡日하여 京都에서 중학을 졸업하고는 다시 3·1운동 전 해에 慶應大學 史學科를 지망하여 豫科에서 수학하였다. 청년기에는 3·1만세 사건 직후 大阪의 天王寺 공원에서 擧事한 혐의로 그곳 지방법원에서 5개월 남짓 未決囚로 감옥살이를 지내다가 풀려나온 뒤에는 학업을 중단하였다. 大學 豫科시절에 京都의 敦賀港에서 알바이트 삼아 첫 기자생활을 했던 그는 한때 橫濱에서 福音인쇄소 직공생활도 지내다가 귀국한 다음 새로 창간된 東亞日報 기자로 활약하다가 다시 五山學校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이미

3) 金鍾均, 廉想涉研究. 高大出版部, 1974, p. 76 또는 p. 553. 金교수에 의하면 1973년 여름 현재 橫步는 모두 32년간의 작품 활동에서 詩 1편, 小說 178편, 評論 101편, 隨筆 183편, 其他 138편으로 총계 467篇에 이른다. 그런데 金교수는 여기에서 小說 178篇중 長篇 28편, 短篇 150편으로 나누어 中篇을 長篇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4) 위의 책 (Ibid), pp. 36~37. 또한 尹炳魯교수도 특히 〈萬歲前〉의 경우를 들어서 橫步의 自叙傳的인 소설임을 언급하고 있다. (現代作家論, 宣明文化社, 197, p. 186)

3·1운동의 여파로 大阪에서 투옥의 체험을 한 무렵부터 習作하여 〈闇夜〉등을 집필한 바 있는 그는 바로 이듬해에 同人誌인 〈廢墟〉를 발간하고 곧 이어 五山學校 시절에 쓴 〈標本室의 靑개구리〉를 24세에 발표하여 文壇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 이후에 〈東明〉이나 〈時代日報〉 편집일에 종사하던 그는 수삼년동안 再渡日하여 전전하다 귀국후 늦게 결혼한 다음 〈朝鮮日報〉등에 근무하면서 계속 창작생활을 계속해 왔다. 특히 30대에는 일대장편 力作인 〈三代〉〈無花果〉〈白鳩〉 등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다가 40대에는 예의 〈滿鮮日報〉 편집 책임자로 10년 동안 만주에 거주하는 동안 작품활동의 休眠期를 갖는다. 그러다가 8·15光復과 더불어 귀국한 그는 이내 京鄕新聞 편집일을 맡고 대학 강의를 나가는 한편 6·25동란 때는 종군 장교 등으로 분주한 중에도 꾸준히 본격적인 창작에 임해왔다. 수많은 단편들은 물론이요, 해방이후 戰後의 한국 사회상을 묘파한 〈暖流〉〈驟雨〉〈새울림〉〈地平線〉의 連作長篇과 〈死線〉〈未亡人〉〈代를 물려서〉등에 이르는 듬직한 장편들을 발표했다.

弱冠의 나이로 渡日 修學하던 習作시절부터 晩年の 直腸癌에 시달리다 66세를 一期로 臨終하기 까지 전후 30년 남짓에 걸친 창작활동 기간동안 한국 新文學史上 作故文人으로서 가장 散文精神에 투철하고 重厚한 力作들을 빚어낸 大家인 것이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알아 볼 수 있듯이 想涉文學은 우리나라가 日帝로부터 방금 國權을 상실하여 비참한 식민지의 桎梏 속에 헤매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염상섭 자신과 함께 형성되고 성숙했다. 바야흐로 甲午更張 이후 마악 文明開化의 기운이 도는 가운데 전통적인 풍습과 학문분위기에서 新式 학교로 就學하고 곧바로 渡日留學하던 京都時節과 慶應大 적의 감옥생활 등이⁵⁾ 처녀작인 〈闇夜〉⁶⁾나 〈標本室의 靑개구리〉처럼 우울 침중한 초기 작품의 內部영역을 차지했고 아울러 대표작인 〈墓地〉와 〈三代〉같은 작품의 무대로써 外部영역을 이루었다고 파악된다. 처음에는 염상섭이 오히려 霽月이라는 아호를 筆名으로 해서 琴童과 치열한 論戰을 불사할만큼 첨예한 評家로 시작한 그가 라이벌 格이던 金東仁으로부터 「筆者는 想涉의 出現에 몹시 不安을 느끼면서도 이 새로운 하트레트의 出現에 痛快感을 禁할 수가 없었다.」⁷⁾고 아낌없는 찬탄을 받았던 것도 바로 작품에서 드러나 있는 불안과 공포의 번민과 어두운 분위기로 빚어진 심리적 요소들이었던 터이다. 그리고 작품의 테마를 橫步가 이와같은 심리세계로 잡은 것은 이것이 이 나라의 小說史上 맨처음에 속하는 일이요 이와같은 主題面에서 보자면 東仁의 소설은 그 당시로서는 想涉에 비해 매우 稚氣가 농후했었다는 金宇鍾 교수의 지적⁷⁾은 타당성을 지닌다.

白鐵 교수는 想涉文學의 특징을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 러시아의인 北歐의인 작품을 가지고 등장했다는 것, 둘째 의식적인 自立主義의 所産이었다는 것, 셋째 일면 다분히 頹廢傾向을

5) 이 작품은 데뷔작인 〈標本室의 靑개구리〉(1921년〈開關〉 8월호)보다 늦게 1922년 1월에 〈開關〉誌에 발표된 것이나 실제로는 1919년 10월에 想涉이 東京에서 脫稿한 첫 作品이다. 이 작품은 당시 〈學之光〉에 투고 하였으나 沒書되어 東仁과의 한국最初 論爭인 批評응호와 그 無用論의 불씨가 된 바 있다.

6) 金東仁, 近代小說考. 東仁全集.

7)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宣明文化社, 1968, p. 141.

떠고 나왔다는 것을 들고⁸⁾ 있는데 이 역시 위에 든 특성을 지칭하는 셈이 된다. 想涉文學은 분명 당시 특수한 시대상황에 처해 살던 작가자신의 苦惱와 함께 식민지 풍토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평론에서 시작된 그의 문학이 점차 수많은 독자를 대상으로 공감력을 지닌 창작소설로 옮겨가서 長篇으로 무르익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소설문학은 특히 〈創造〉동인들의 예술 至上의 태도나 〈白潮〉동인들의 幻想的 浪漫主義 지향에서 오게 마련인 현실 외면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되는 리얼리즘 정신의 구현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當代를 풍미하던 이른바 카프적인 프로文學에 빠져들지 않고 시종 바람직한 民族文學을 추구한 진지성을 지닌 채 돋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橫步文學 특성이 많지만 다음의 作品論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제시되는 바를 참고해서 추가하기로 한다.

Ⅲ. 〈墓地〉(萬歲前)

이 작품은 본디〈新生活〉7호에서 9호에 〈墓地〉란 제목으로 연재(1922년)하다가 그나마 9호분은 全文削除되고 또 同誌의 폐간으로 인하여 未完인 채 중단되었으나 1924년에 다시〈時代日報〉에 〈萬歲前〉이란 제목으로 바꾸어 연재하여 완성된 문제작이다. 하지만 그후에도 이 작품은 1924년 8월 高麗公司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와 해방후인 1948년 2월에 다시 首善社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할 적에 각각 부분적으로 改作하는 등 기실 1922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동안 중단과 改名및 數 번의 改作過程을 거침으로써 마침내 完結된 작품인 것이다.⁹⁾ 이는 식민지 시대에 활화화되는 모든 작품은 거의가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의 철저한 검열을 통하여 발표된다는 특수성이 수반되게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墓地〉(萬歲前)는 蔡燦교수의 지적처럼 초기의 3作品¹⁰⁾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구성이 산만하고 생활의식이 皮相的으로 파악되어 있다든가 暗鬱難澀한 분위기 속에 껴싸여 있거나 현실폭로와 그 비애를 나타내려는 소위 자연주의적인 製作意圖가 거의 현실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해 겨울의 諸般狀況(특히 韓國內의 제반상황)을 일본에 유학 중이던 나(李寅華)를 통해 비판·고발·성토·분개토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케 하고¹¹⁾ 있는 작품이다. 확실히 이 작품은 식민지 시대문학의 秀作의 하나로서 흔히 오늘의 우리가 식민지의 현실을 가장 탁월하게 제시하고 관찰했다든가, 또는 한 시대의 時代意識의 봉우리에 있다고 까지

8) 白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76. p. 158.

9) 李在鎰, 日帝의 檢閱과 〈萬歲前〉의 改作, 文學思想, 84호, 1979년 11월호, p. 272.

10) 여기서는 想涉의 習作性을 면 〈閨夜〉〈標本室의 靑개구리〉〈除夜〉등의 短篇을 지칭한다.

11) 蔡燦, 1920年代 韓國作家研究. 一志社, 1976, p. 74.

서슴없이 평가해 마지않는 염상섭의 대표작임이 분명하다.¹²⁾

사실 <標本室의 靑개구리><두破産><三代>등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져있는 이 작품을 분석, 설명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18년 겨울, 세계 1차 대전 후의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 東京의 Y大 文科에 재학중인 문학청년 나(李寅華)는 학년말 시험 중에 6,7년동안 특별한 애정없이 同居해온 고향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길에 오른다. 먼저 H교수의 허가를 얻고 M軒 카페에서 시즈코(靜子)와 P코를 만난 뒤 완행을 타고 가다가 중학을 다녔던 神戶에 내려 C음악학교 기숙사에서 여자친구 乙羅를 만난다. 그리고 다음날 下關에 내려 연락선을 타려는데 대합실에서 형사가 나이와 학교, 행선지 등을 묻고 치국거립을 당한다. 언짢은 기분으로 3등 船室의 욕실에서 목욕할 때 옆에서 朝鮮의 촌사람들을 노동자로 모집하는 日僑부로카들로부터 조선사람 경멸의 대화를 듣고 울화가 치민다. 그런데 목욕 후에는 또 과출소 형사가 나를 불러내서 原稿뭉치등의 소지품을 조사받고 하룻 밤 후에 釜山 선창에 닿자마자 또 육혈포찬 헌병과 보조원에 끌려 취체를 당한다. 열쇠구멍 미까지 조사 받고 나온 나는 근처 釜山거리의 나나노 술집과 국수집등에서 日父鮮母 아가씨의 병적인 하소연을 듣고 형님이 교편잡고 있는 金泉에 내려 형과 동거하는 작은 형수(최참봉 딸)와 식사하며 형제가 山所이야기로 말다툼하고 다시 서울行 기차에 오른다. 기차가 추풍령을 넘을 무렵 金議官같은 親日 아부족들의 사냥꾼 행자과 공동묘지 얘기를 듣고 서너 순경에 둘러싸여 결박당한 범인 댁사람 속에 어린애를 업은 채 결박 당해 의자에 걸터앉은 여자를 목격하고 섬뜩한 느낌에 젖는다. 1년 半만에 서울집에 도착한 나는 혼수상태의 病人(부인)의 유종치료를 돌보며 김병화집에 들러 乙羅 소식을 묻고 있는 동안 부인의 상을 맞는다. 장례 며칠 후에 마침 동경서 날라든 시즈코의 편지를 받고 부의금 1/3을 부치고 나서 열흘 뒤에 다시 동경으로 떠날 체비를 한다. 정거장까지 전송 나온 큰집 형이 내년 봄에 귀국하여 재혼(續絃)하기를 권유하자 「겨우 무덤속에서 빠져나 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해 거무려 거릴 때가 되거든요……」 하고 웃으며 종종 기차의 승강대에서 객실로 향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주인공이 일본 유학에서 부인의 위독전보를 받고 귀국하여 다시 동경으로 향하는 과정의 1인칭 視點을 통한 平面構成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식민지 상황을 여실하게 묘사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보다 1년 전에 발표하여 登壇한 <標本室의 靑개구리>에서 병적인 불면증에 걸린 <나>가 벗인 H와 더불어 평양을 거쳐 南浦를 다녀서 귀성한 여행기적 구성과 구조가 유사하다. 하지만 단편 <標本室의 靑개구리>가 다분히 개인적이며 내면적인 번민이 승한 채 태반의 분량을 차지한 狂人 金昌億(<그>) 이야기로 초점이 흐려져 실패한 데 비하면 <墓地>는 보다 보편적인 식민지 백성의 아픔과 참상을 외면적인 터치로 성공시킨 中篇이다.

주인공이 귀국전에 동경에서 귀국선물로 산 것 중에서 털목도리를 M軒 카페의 시즈코와 P코

12) 李在鎭, 앞의 책(op. cit.), p. 272.

에게 선물하고 神戸에서 C음악학교 기숙사로 乙羅를 찾아가는 일본에서의 펍 자유스럽고 낭만적인 것과 대조되는 귀국후의 정황은 당시 황폐하고 질식할 식민통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 현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下關에서 연락선을 타려할 때 치근거리던 형사와 헌병과 그 보조원에 의한 파출소行 및 소지품 조사에 이어 일제치하 조국의 상황을 암담과 울분 대상 그대로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부산시내의 日式으로 변모한 선창가의 '모습하며 추풍령 고개를 넘을 무렵 기차에 오른 親日 아부족들의 행색과 함께 열차칸 한 구석에 결박을 당한 범인 너덧 중에 등뒤에 아이를 업은 채 포승을 지은 여자가 앉아있는 찻잔에 또 헌병과 형사들의 수색이 시작되자 이를 먼히 기다리고 있는 광경에서 작자가 주인공 <나>를 통해 행하는 극랄한 고발과 분노는 그런대로 배서운 對日抗拒요, 당시의 우리 同胞들에 대한 지탄이기도 하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뚱져 버려라!」

차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쫓는 무덤이다!」(중략)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하는 가룩한 백성들이 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런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것 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시글득시글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두 구더기, 나두 구더기다. 그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경쟁이 있고, 자연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 뿜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는 날날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가 네나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에잇! 뚱져라! 움도 삭도 없이 스러져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 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버리든지 양단간에 끝장이 나고 보면 그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

橫步는 이렇게 <墓地>(萬歲前)에서 3·1운동 직전의 각박한 일제 통치하의 식민지 조국을 공동묘지로 상징화시키고 자각없이 사는 백성들을 득시글거리는 구더기로 표출시킨다. 그리고 그는 또 큰집 형과 술상을 같이한 자리에서 일제 압제에 대한 반발이 민족성 비판적인 반항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먹고도 싶지만 조선에 돌아오면 술이 금시로 느는 것이 걱정이었다. 조선 와서 보아야 술이나 먹고 호지부지 하는 것밖에는 사실 할 일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아닐 것 같기도 하지마는 생각하면 조선사람이란 무엇에 세력을 인종인지 모르겠다. 아침에도 한잔, 낮에도 한잔, 저녁에도 한잔, 있는 놈은 있어 한잔, 없는 놈은 없어 한잔이다. 그들이 이렇게 악착한 현실(現實) 앞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노력이요. 그리하자면 한잔밖에 다른 방도와 수단도 없다.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도 없이 질질 끌려가는 것이다. 무덤으로 끌려간다고나 할까? 그러나 공동묘지로는 끌려가지 않겠다고 요새는 발버둥질을 치는 모양이다. 하여간 지금의 조선사람들에게 술잔을 뺏는다면 아마 그것은 그들에게 자살의 길을 교사(敎唆)하는 것일 것이다.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이것만이 그들의 인생관인지 모르겠다.

이밖에도 우리의 민족성을 매도하는 귀절은 〈墓地〉의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전체 9장으로 나는 경우의 5장의 허두와 끝부분에서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온 이 민족이 그나마 혈표로 물려앉아서 팔아라, 먹자! 하고 노름에 실패하면 자포자기하기 일췌인 단점과 날만 새면 자리속에서 부터 담배를 피워 물고 아침부터 술집이 번창하고 주먹없는 입씨름에 밤을 새고 이튿날에는 대낮에야 일어나는 습성의 지적들이 그것이다. 6장의 후반에서 언급한 바, 계모 시하에서 자라난 자식과 같이 몹쓸 심뻐처럼 일본 순사는 눈을 부르대고 그만둘 일도, 한사코 깃꿩이 뺨을 갈기고 으르렁 대는 조선인 순사나 헌병의 그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런 민족성 비판들은 이무렵 논란의 대상이 된 春園의 논설 〈民族改造論〉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여러 독자들에게 주체적인 민족의식과 항일의지를 불러일으켜 반성, 각성케 하여 충고의 효과를 노리는 한편 작가 자신의 울분을 터뜨려 카타르시스하는 실효를 거두는 것이라 파악된다. 그러면서도, 상섭이 주인공을 통해 겨누고 있는 것은 역시 尹弘老 교수의 진단처럼 몰락해가는 조선의 현실을 고발함과 동시에 우리민족의 존엄한 自我省察¹³⁾은 물론이다.

그리고 작가는 또한 여기에서 이상의 진술한 민족성 비판을 곁들여 보다 격렬하고 절실한 抗日의 의지와 분격할 심정을 글로써 토로하며 굴절시켜 통쾌하게 카타르시스 되는 표현의 맛을 만끽하곤 했으리라 생각된다. 〈墓地〉의 주인공인 〈내〉가 關釜連絡船으로 귀국 도중에 선실의 욕실에서 예의 일본인 노동자 모집원으로부터 조선의 촌사람(요보)들을 대만의 야만인인 생번(生蕃)으로 취급하여 험한 샅전으로 속여서 데려간다는 대화를 엿듣고 자책하는 대문은 의미가 깊다.

스물 두셋쯤 된 책상 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한지 인간성이 어떠한지, 사회가 어떠한지 하여야 다만 심심파격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언어배웠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詩)니 소설이니 한때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 하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만한 판편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 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후략)

이 구절은 바로 당시 작가가 쓸 수 있는 항일의 한계점과 일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행동 반경을 파악케하는 대목이 될 수 있다. 물론 〈墓地〉발표 당시에도 〈新生活〉誌 9호의 연재분은 검열에 걸려 全文削除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길게 底流하고 있는 抗日性의 이 작품이 그런대로 햇볕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터이다. 우리는 역시 당시의 朝鮮社會를 克明히 描寫한 것으로 作家精神의 올바른 구현을 볼 수 있는데 日帝의 심한 檢閱網을 뚫고 이와같은 作家精神이 활자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3·1운동 이후의 좀 완화된 文化政策의 시행초였던 까닭이었다¹⁴⁾고 생각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洪曉民이 지적한

13) 尹弘老, 앞의 책(op. cit.), p. 175

14) 金鍾均, 앞의 책(op. cit.), pp. 97~98.

대로, 作者의 작품적 수법이 크게 暗示的인 솜씨를 보임으로써 1910年代의 한국적인 社會相을 포착한 精確한 朝鮮의 風俗史를 기술할 수 있었다¹⁵⁾고 이해된다.

이와같은 일제 통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墓地〉는 한 지식인 청년의 의식과 관찰을 통하여 한 시대와 사회의 꺾박성을 민족사적인 縮圖로써 승화, 구현시킨 抗日性의 리알리티를 지닌 문제작임이 분명하다. 어쩌면 平面스런 시간적 자연순위에 따른 進行的 構成에다가 內省的인 염상섭 특유의 심리소설성을 가미하여 단조로움을 극복한 채 성공하고 있는, 당시로서는 꽤 대견스런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黃順元교수의 견해처럼 주인공이 동경 유학에서 1년 6개월 만에 서울 본가에 돌아왔는데 그 아들 충기가 生後 5,6개월이라는 대목같은 모순등이 없지않은 대로¹⁶⁾ 식민지 시대 문학의 주요 대상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염상섭의 眞價가 많이 논의되어 이야기되는 여러 學者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들도 역시 필자의 의견과 직접 간접으로 합치되고 있음을 헤아릴 수 있음도 이 때문이다. 요컨대, 〈墓地〉는 강요된 침묵과 非人道的인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폭력적인 분위기에 함몰된 한국인의 삶의 징후를 제시하려 함으로써 문화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었던 시대에 정직한 문학이 겪지않을 수 없는 제약의 한 斷面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염상섭이 작중인물인 나를 통하여 연락선 속에서 목격한 장면이나 기차 속에서 주고 받는 대화 하나하나가 그대로 정복 당한 조국의 縮圖요, 社會病理의 투철한 照明이라¹⁸⁾는 柳宗鎬의 견해 또한 옳은 것이다.

金禹昌 교수도 설파하듯, 〈萬歲前〉은 근대 문학의식의 발달에서 하나의 정점을 이루는데, 이 작품에서 비로소 한 가닥의 성숙에 이른 한국문학의 근대의식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남김없이 감싸고 또 그 지평을 이루는 세계에 닿으며 개체와 사회의 삶의 안팎을 하나로 거머쥘 수 있게 된 것이다.¹⁹⁾ 그리고 橫步小說의 성숙과정을 살펴보면 단편 〈標本室의 靑개구리〉에서 시도하여 결국 중편 〈墓地〉에서 근대적 리얼리즘文學을 성공시켰는데 이 작품은 곧이어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장편인 〈三代〉의 三部作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橫步小說의 본령이라 칠 수 있는 대표 장편 〈三代〉類의 震源의인 바탕을 이룬 이 작품을 對比, 연결하여 고찰해야 한다. 〈墓地〉(〈萬歲前〉)은 想涉의 초기작품세계를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想涉小說의 源泉의 思想을 지닌 作品인 것²⁰⁾이기 까닭이다.

15) 洪曉民, 萬歲前을 읽고. 朝鮮日報, 1948. 11. 20. (위 책에서 재인용).

16) 이러한 〈墓地〉 작품 제작상의 모순은 黃順元 교수가 대학원 국문학 세미나(1979년 5월 23일)에서 지적해서 밝힌 바 있다.

17) 李在錫, 앞의 글(op. cit.), p. 276.

18) 柳宗鎬, 廉想涉論, 現代韓國作家研究, 民音社, 1976, p. 99.

19) 金禹昌, 비범한 삶과 나날의 삶, 植民地時代의 文學研究, 깊은샘社, 1980, p. 250.

20) 金鍾均, 앞의 책(op. cit.), p. 283.

IV. <三代>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염상섭의 작품중에서 뿐만 아니라 植民地 治下의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의 하나로 지칭²¹⁾되고 있는 <三代>는 본시 1931년 <朝鮮日報>에 215회(1.1~9.17)에 걸쳐 安夕影의 삽화와 함께 연재되었던 본격적인 장편소설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가치와 그 주요성은 한 마디로, 장편 <三代>는 염상섭의 代表作일 뿐더러 한국 新文學이 소설적 방법으로 도달한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로써 當代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를 건드리면서 인물의 造型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三代>의 성과를 넘어서는 社會小説은 찾기 힘들다는 논급²²⁾을 보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만 하다.

이제 이 작품의 기법이나 특색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접근하기 위해서 <三代>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간추려질 수 있을 것이다. 워낙 두툼한 분량인데다가 橫步小説의 특징 대로 수많은 등장 인물들이 종횡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잡다한 사건이 각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장편이므로 여기서 대체적인 윤곽을 참고할만 하다.

1930년대 초엽, 서울의 만석군인 趙氏네 집안은 삼대가 대가족을 이룬 채 살고 있었다. 위로는 구한말로부터 양반 행세를 위해 족보를 사들이고 돈을 모으는 실리 위주의 처세로 재산가가 된 趙議官과 개화풍의 서구문물을 접하고 미국을 다녀온 후 교회나 학교운영 같은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음주와 축첩등의 二重생활로 가산을 탕진하는 趙相勳, 그리고 봉건적인 祖父나 기회주의적인 父親 밑에서 온전하게 자라며 주위의 위험한 사회주의 청년들과도 사귀는 소극적인 식민지 지식 청년 趙德基가 그들이다. 그리고 이들 삼대의 주인공에게는 각각 수많은 식구와 친척들이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복잡한 구조의 역학관계로 얽려져 있고 있다.

일본의 京都三高 졸업반인 덕기는 겨울방학을 서울집에서 지내면서 곧잘 중학동창이던 친구 병화(金炳華)와 어울려 다닌다. 평양의 장로 아버지와 충돌하여 학업을 중단한 채 집을 나와사는 병화의 비틀어지고 꼬집는 성격도 잘 받아 처리한다. 그리하여 덕기는 3·1운동 때 투옥되고 면직된 혁명가 집에서 하숙생처럼 기거하는 병화를 통하여 고무공장 직공인 그집 딸 필순(李필순)이나 경애(洪敬愛)등과 가깝게 사귀고 그들을 돕게 된다. 평소 반항적 기질이 농후한 사회주의 청년인 병화가 친한 경애는 다름아닌 덕기의 소학교 동창이며 덕기 아버지와 동거도 해서 딸을 하나 가진 여자이다. 본디 미모를 가진 수원의 양가집 卍수였으나 애국지사인 아버지 별세 후로는 편모와 함께 난감한 처지로 상훈의 도움을 받다가 첩의 신세가 돼버린 셈이다.

덕기는 병화와 더불어 자주 경애가 아이꼬(愛子)상이란 이름으로 출근하는 술집 <바카스>에 들러서 그녀는 물론 일본인 오판사의 딸이라는 마르크스 결인 중업원 정자(시스프)등을 만나지만 애정은 더 영리하고 가난한 필순에게 쏠린다. 상훈 역시 심심찮은 의도를 즐기고 마작을 하며 가끔 <바카스>를 찾지만 그에게 베푼한 경애는 오히려 병화와 친할 뿐더러 동지적인 처지로 긴밀히 협조한다.

21) 金允植, 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p. 156.

22) 廉武雄, 民衆時代의 文學. 창작과 비평사, 1979, p. 246.

졸업시험을 위해 일본으로 떠난 덕기한테서 생활비 10원을 보조받은 병화는 하숙집의 가게를 보며 마침 혁명운동가로서 국내에 잠입하여 경애집에 은신해 있는 피혁(李友三)의 도피를 돕는다. 필순을 시켜 경애집에 변장용의 한복 두루마기를 보내 피신케 하고 국내외의 사회주의자들과 은밀히 연결지며 혁명운동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편 덕기가 일본으로 떠난 얼마 후 병화에 몸져누운 조의관은 조씨 가문을 맡아갈 기등으로 삼은 손주를 불러오기를 고대한다. 몇 번이나 전보를 채근했는데도 병인으로부터 많은 재산 상속을 노리며 병간호를 맡은 수원택(조의관의 후취)과 창훈(조의관의 당질)의 속임수로 지연되다가 뒤늦게 도착한 덕기는 집안 사정과 주위일들로 난감해 하며 곤욕을 치른다.

우선 덕기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의 유서를 전하고 조부가 입원해 있는 사이, 사랑채 깊숙히 금고 속에 넣어둔 서류를 노리는 수원택과 창훈, 최참봉 등이 신경을 쓰게 한다. 더구나 마담인 매당집과 그의 소실인 김의경에게 분에 넘는 새가구를 사들이고 매일 술과 마작에 여념없던 상훈마저 상속에 불만한 나머지 문제의 금고 서류를 훔쳐다가 흥청망청한 집안 사정에 착잡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무엇보다 병원에서 조의관 노인이 비소 중독으로 독살되었다는 점으로 덕기가 의혹을 받아 지주사나 상훈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 열병에 앓아 수난은 겹치고 있었다.

나중에 독살사건은 겨우 재산상속을 노린 수원택네들이 매당집의 조종으로 꾸민 계략임이 드러났지만 오직 하나의 동정자(뽀파다이어)로서 병화의 생활비와 경애의 가게(산해진) 비용 및 사회주의자들에게 테러를 당해 입원한 필순부친의 치료비를 맨 처사에 의심을 받아 수사를 당하곤한다. 경애 모친의 친정 조카인 피혁의 구두가 장훈의 사랑방에서 발견되어 급진 형사주임등으로 부터 추적을 받던 일단의 사회주의 혁명운동가들이 검거될 때에 연루된 것이었다. 결국 주동자격인 장훈(장개석)이 끝내 취조실에서 입술을 깨물고 자결한 뒤에 고문을 당한 필순, 지주사 및 상훈에 앞서 경찰서에서 풀려나온다.

그리고 덕기는 아직도 비소중독 사건으로 간혀있는 수원집과 사회주의 운동에 연루된 병화나 경애 모친의 석방을 기무라 형사과장에게 부탁한다. 이러한 집안의 착잡한 소용돌이로 이미 졸업시험의 기회를 놓친 그는 그래도 장훈일파의 테러로 입원해 있다가 기어코 숨을 거둔 불우한 독립투사의 유족인 필순 모녀를 자기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三代>는 직접 간접으로 <墓地>(萬歲前)와 밀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장편이다. 작중인물 중에서 제일 주요한 비중을 지닌 덕기는 <墓地>의 주인공인 <나>(이인화)의 變身이며 그의 친구인 병화와 여자친구 정자(시즈코=S코)나 최참봉은 이름마저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대 역시 서울과 일본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른바 조선총독부에 의한 식민시대를 취하고 있는 작품들이란 점에서도 유사한 면이 없지않다.

그리고 橫步小說 특색의 하나임에 분명한 사건의 동기에 있어서도 먼저 病人을 설정해 놓고 작품을 꾸며나가는 방법 또한 일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墓地>의 경우 동경 유학생인 나(이인화)가 시험기중 중에 아내 위독이라는 급보를 받고 귀국하듯 <三代>도 중반부에서 방학 후 일 본에 가 공부하던 덕기가 조부(조의관) 병세악화라는 전보를 받고 귀향하였고 병인(조부)이 입원해 있을 당시 금고 사건이 일어나고 경애가 상훈의 첩이 되고 필녀 역시 덕기와 남달리 밀착되는 계기도 역시 그녀들의 부친이 병원에 환자로 있다가 죽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작품에다 병자를 주요인물로 설정해 놓고 그 병인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제각

을 구미거나 시기, 질투·내지 病人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보다 미묘하고 길으며 절실한 사건으로 이끌어 효과를 거두는 수법의 일환임이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병인 설정의 창작적 요소는 <標本室의 靑개구리>를 비롯해서 <臨終><絶穀><조그만 일><죽음과 그 그림자><난 어머니> 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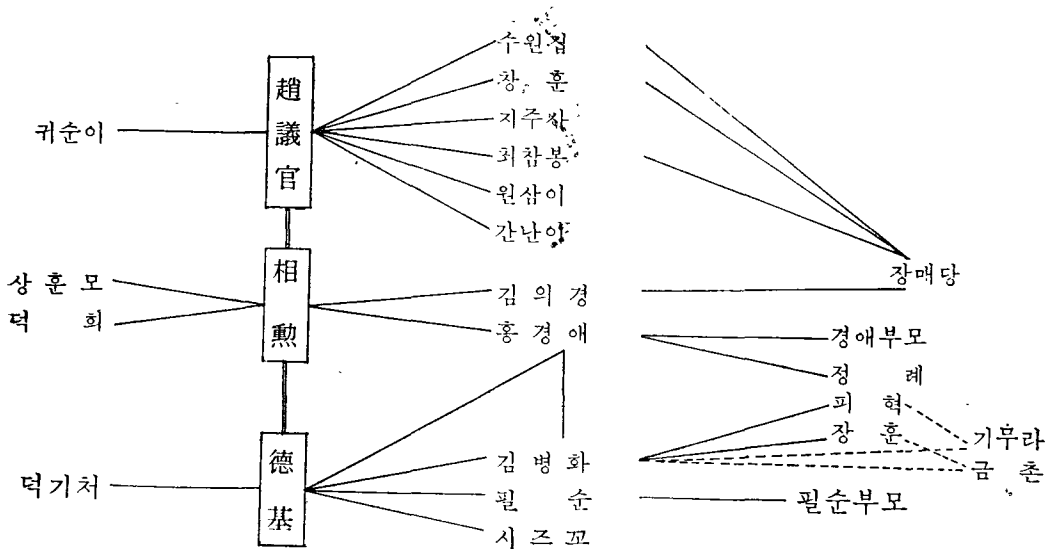
시간적인 구조가 대체로 진행적 구성으로 되어있고, 공간적 구조 역시 덕기가 서울 있을 때와 서울에 없을 때, 그리고 다시 서울에 돌아왔을 때로 볼 수 있으며 어찌면 덕기 부친의 건강상태가 정상으로 안정되어 있을 시기와 위독한 시기, 또는 사후의 혼란기로도 파악할 수 있어서 양자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듯 하다.

뿐만 아니라 柳宗鎬 교수도 그의 名手의 솜씨는 한국적 가족제도나 가정에 있어서의 家族像의 조형에서 특히 빛을 내고 있다²³⁾고 언급한 바 있지만 橫步는 예의 <萬歲前>이나 <一代의 遺業>등의 보기에서 보라도 <三代>에서 훨씬 더 익숙하고 다채롭게 한국의 가족관계나 전통적인 인습 내지 심리적인 상호관계를 묘사하고 있어 좋은 보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三代>가 앞장에서 검토한 <墓地>의 수준에 머물고 말거나 또는 그렇게 유사한 요소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결코 이 작품이 상하로 삼대에 걸친 장편이라거나 제작연대를 달리해서 쓰여졌다는 이유 따위에서가 아님은 물론이다.

우선 <三代>에서는 전자(<墓地>)에서와는 달리 작가의 냉철한 관찰로의 땅의 식민통치가 한 고

등장인물 관계도표



23) 柳宗鎬, 앞의 논문(op. cit.), p. 98.

비인 1930년대의 현실을 시종 全知的 視點으로 보다더 개인과 민족의 의미 및 사회적 自我의 인식을 世代的 갈등의 문제들을 곁들여 입체적으로 추구한 회심의 역작이다. 따라서 구세대를 대표한 趙議官과 과도기적인 개화기 세대를 대표한 相勳, 그리고 새로운 식민지 세대를 대표한 德基 같은 전형적 인물의 설정과 상호간의 역학관계는 심사숙고한 만큼 짜임새가 있고 흥미로우며 의미가 깊다. <墓地>가 다분히 여행기적인 평면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비해 <三代>가 한껏 세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중심하여 씨줄로 상하관계를 잇고 한편으로 재산과 애정 및 사회운동의 꼬나블로 날줄을 맺으면서 훨씬 입체적인 구조로써 밀도를 더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橫步는 <三代>에서 주요한 작중인물로 남녀 30여명을 등장시켜 각기 趙議官과 相勳 및 德基를 중심한 상호관계나 사건전개에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典型化시키고 정연하게 요리해 놓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대개 平板의 人物인 대로 선명한 개성들을 지니고 있어 수궁이 된다.

악랄한 수탈만이 행해지는 묘지 그것이 염상섭이 파악한 <萬歲前>의 한국사회이다. <三代>는 그러한 <萬歲前>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소설이다. <萬歲前>에 대한 울분으로 토해진 많은 것들이 <三代>에서는 차분히 정리된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묘지를 보는 작세대, 한말세대 개화기 세대, 식민지 세대의 세계관을 염상섭 특유의 눈으로 비판하는데 있다. 그 묘파는 물론 圖式的인 것이 아니라 한 家族史를 통해 행해지고 있어 현실에 굳게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²⁴⁾

이와 같은 견해에서도 <三代>의 가치나 前者와의 상이점이 드러나 있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면 기실 그 특성이나 문제점은 이 밖에도 결코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이다.

일찌기 김현은 프랑스의 발자크와 橫步의 그것을 비교적으로 고찰하여 그 두 작가가 각각 하나는 1830년대 프랑스 사회를, 또 하나는 1920년대의 한국 식민지 사회를 다룬 그 어느 작가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려냈다²⁵⁾고 밝혀내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三代>에 적중되며 염상섭 문학 접근을 위한 卓見의 하나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의 인물들의 드라마는 초기의 몇개의 작품을 빼면 대부분 돈과의 격투라는 가장 근대적인 드라마이다. 돈을 에워싼 여러 종류의 인물들의 애환을 그림으로써 그는 식민지 치하에서부터 6·25에 이르는 기간의 한국사회를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묘사하여 형상화해 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의 소설은 주제의 빈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작가의 어떤 소설보다도 강렬하게 일관된 하나의 주제, 돈과 인간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어……(중략). 그의 문학은 그런 의미에서 부르조아의 문학이라고 지칭될 수 있다.²⁶⁾

특히 <三代>에 있어서 식민지 세대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新世代를 대표하는 온건한 中産階級的 부르조아 출신인 덕기가 무산계급층에 속하는 김병화나 흥경애 내지 이필순네에게 금품과

24) 金允植, 김 현, 앞의 책(op. cit.), p. 159.

25) 김현, 廉想涉과 발자크, 金允植編, 廉想涉. 文學과 知性社, 1977, pp. 103~104.

26) 金允植, 김 현, 앞의 책(op. cit.), p. 156. 그러나 橫步小說이 모두 돈과 인간과의 관계만을 주제로 다룬다는 속단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애정으로 배개하여 경제적인 대립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거의가 끈질긴 재산상속에 상관된 일에는 대단한 암투를 벌이는 셈이 된다.

그리고 <三代>에서 염상섭의 식민지 세대에 대한 애정은 그의 탁월한 현실파악을 가능케 했음이 사실인데 역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兩分된 식민지 세대를 작가는 아무런 편견 없이 한 改良主義者의 눈을 통해 따뜻하게 관찰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상호침투, 테러리스트의 대두와 활동, 同伴者의 활약상등이 이 소설에서 처럼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없을 터인데 특히 테러리스트의 묘사는 韓國小說史上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점²⁷⁾ 또한 이 작품 특징의 하나이다. 해방 후 귀국하는 도중의 체험을 쓴 <깃지않는 개>에서도 어린 소련군 장교를 사심없이 애정어린 태도로 다루었지만 30년대 초 식민지통치하의 상황과 사회주의 운동상을 피혁의 변장과 형사들의 긴장된·미행, 그리고 백주의 테러나 경찰서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입술을 깨물어 자결하는 장개석의 처사처럼 리얼한 표현은 놀라운 바가 있다.

또 따져보면, 김현의 견해같이 1930년대에 이르러 개화기 초의 새것 콤플렉스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뚜렷한 이념으로 분화되는 계기를 다름아닌 염상섭의 <三代>와 채만식의 <太平天下>가 만들었으므로²⁸⁾ 두 작품이 서로 對比될 수 있는 점을 내쳐버릴 수 없다. 이들 작품은 30년대의 일제 식민지하에서 한국 지식인들이 쓸 수 있었던 두개의 극단적인 발언을 각각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염상섭의 <三代>는 민족주의자——보수주의자가 본 30년대의 한국사회를, 채만식의 <太平天下>는 사회주의자——진보주의자가 본 30년대의 그것을 문학적으로 뛰어난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삼대 중에서 염상섭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식민지 세대(덕기·병화등)이며, 채만식이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韓末世代(윤치원)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세대에 대한 두 작가의 태도가 선명히 드러난다²⁹⁾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太平天下>의 가족구성원들은 그들이 등을 대고 산 역사적인 空間과의 상관관계를 거의 갖고 있지 않는 동굴 속의 隔離者들인 반면에 <三代>의 등장인물들은 사회적 문맥과의 간단 없는 교섭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太平天下>는 이미 보아온 바와같이 諷刺形式이라는 유격전술을 쓰고있는 遠隔攻擊인데 비해 <三代>는 作家가 正攻法으로 들이대고 있다는 점³⁰⁾등이 서로 비교되기도 한다.

끝으로 장편인 <三代>는 앞에서 논급한 대로 중편 <墓地>(萬歲前)의 상관성에서 쓰여진데 이어서 이후에 발표된 장편<無花果>³¹⁾를 거쳐 <白鳩>³²⁾로 맺는 三部作 중의 한 편임을 잊어서는 안될

27) 위의 책 (Ibid.), d. 160.

28) 김 현외, 現代韓國文學의 理論. 民音社, 1974, p. 216.

29) 위의 책 (Ibid.), p. 218.

30) 辛相雄, <太平天下>의 諷刺構造研究. (碩士論文), 1980, p. 49.

31) <無花果>는 <三代>의 발표에 이어 1931년 11월 13일부터 1932년 11월 12일까지, 329회에 걸쳐 <毎日申報>에 연재한 염상섭의 最長작품이다.

32) <白鳩> 역시 1932년 11월 1일부터 1933년 3월 31일 사이에 137회에 걸쳐 <朝鮮中央日報>에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다는 점이다. 그것은 <三代>가 作者에 의하여 深謀遠大하게 계획된 三部作이었다는 사실과 그 二部, 三部가 모두 作者의 精神世界를 투철하게 표상한 作品이며 <三代>는 그 第一部로서 祖父代의 生活이 보였을 뿐이며, 그의 臨終으로 이야기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子孫의 代는 다시 <無花果><白鳩>에서 작중인물의 이름들이 바뀌어 묘사되고 있기³³⁾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 처럼 文學史의 기념비적인 주요 작품인 <三代>도 엄밀하게 검토할라 치면 完結無缺하리만치 흠이 없는 것은 아님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미흡점에 대해서는 이미 金允植교수도 이를테면 父 상훈의 치졸한 연극, 그리고 순순히 회계하는 장면, 지주사의 배신의 동기, 병화의 새출발, 필순에의 방황 등등이 형편없는 皮相의 관찰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³⁴⁾고 말한 바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도 이에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다름아닌 <三代>의 중반 이후부분쯤 문제의 금고에서 밀봉된 서류를 훑쳐내려는 손질이 뻔치고 할 무렵에 재산상속의 명세를 적어내 보인 때목 가운데서,

필자는 여기에 조씨집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잠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구절처럼 작가가 갑자기 작품에 뛰어나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한 실수의 하나지만 이는 <三代>의 커다란 비중에서 보면 한낱 玉에 묻은 조그만 티일 뿐이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新文學 초기에 登壇하여 광복이후를 거쳐 60년대 초엽에 이르도록 40여년의 창작생활을 통하여 文學史的인 작품 실적을 쌓아온 橫步 염상섭의 삶과 소설을 중심한 文學의 실체를 논의를 보았다. 그의 수다한 작품 가운데서도 특히 가장 대표적인 두 作品을 주로 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洪以燮 교수도 지적한 대로, <三代><萬歲前>을 비롯한 일련의 作品은 想涉의 小說觀↔역사관↔현실관의 等式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³⁵⁾ 때문이다.

사실 <墓地><萬歲前>는 상섭의 초기 작품세계를 代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想涉小說의 源泉의 思想을 지닌 작품³⁶⁾이며 <三代>는 이 보다 10여년 후의 원숙기에 쓰여진 橫步 자신에 의한 회심의 力作으로서 1930년 초엽 식민지 한국의 사회상과 정신적 상황을 리얼하게 묘사한 紀念碑的인 장편의 민족 서사시임을 공인하는 대상작품이다. 두 작품은 상섭의 가장 본격적인 작품들로서 그 사상이나 인물성격 및 구성 또는 문체에 이르기까지 橫步다운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소설중의 精髓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새삼 위대한 근대 寫實主義 작가로서의 橫步 염상섭의 참된 가치와 문학적인 특성 내지

33) 金鍾均, 韓國近代作家意識研究. 成文堂, 1980, p. 207.

34) 金允植編, 앞의 책(op. cit.), p. 61.

35) 洪以燮, 三代의 歷史性(韓國史研究會발표), 東亞日報, 1972, 9. 20.

36) 金鍾均, 앞의 책(op. cit.), p. 281.

일관성을 지닌 바람직한 본격적인 長篇作家로서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申東旭 교수도 파악했듯이 당시에는 으레 異狀心理, 퇴폐적인 快樂, 현실을 도피하는 幻想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다른 작품들에 의하여 가려져³⁷⁾ 있던 橫步의 소설이 왜 오늘날에 와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작가 자신은 어떠한 신념으로 꾸준히 임해 왔는가를 반성하고 거울삼아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37) 申東旭, 廉想涉의 〈三代〉, 金允植編, 廉想涉(op. cit.), p. 164.